부산 도심 밝힌 '지혜의 등'

5월 1일 송상현광장서 점등식
제등행렬 · 소원등으로 축제 열기
정오 스님 "인류 평화 마중물"
한마음선원부산 미니 제등행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연합회가 5월 1일 송상현광장에서 '불기 2570년 부산연등회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연등문화제가 송상현광장에서 막을 올렸다. 도심을 장엄한 불빛은 갈등을 넘어 평안과 화합을 발원하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는 5월 1일 송상현광장 특설무대에서 '불기 2570년 부산연등회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회장 정오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천지동근 만물일체(天地同根 萬物一體)' 사상을 언급하며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이 세상은 세계일화,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다. 중생의 어리석음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한순간에 지혜로 거듭날 수 있다"며 "오늘 우리가 정성으로 밝힌 이 연등 물결이 갈등과 반목으로 앓고 있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온 인류에 평화의 기운을 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밝히는 등불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며 "탐진치 삼독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비춰 각자의 여래장에 불을 붙이고, 타인을 깊이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기와 욕망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자"고 당부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오늘 개막을 계기로 부산 시민과 불자 여러분 모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빈들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등이자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상징"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실천이 모일 때 부산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은 "2600년 전 인류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길을 열어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산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어진 점등식에서는 점등 선언과 함께 송상현광장 일대에 설치된 수천 개의 전통등이 일제히 불을 밝히며 장관을 연출했다. 광장 중앙에 우뚝 선 웅장한 대형 탑등을 비롯해 부처님과 코끼리, 용, 연꽃으로 꾸며진 다채로운 장엄등이 형형색색 불빛을 뿜어내며 밤하늘을 수놓았다.

특히 점등식 직후에는 천태종 삼광사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들이 동참한 미니 제등행렬이 이어져 축제에 환희심을 더했다. 사부대중은 광장 일대에 각자의 염원을 담은 소원등을 직접 달며 자신과 이웃을 향한 자비의 빛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부산연등회는 이날 점등식을 시작으로 송상현광장 일대에서 다채로운 전통등 전시와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5월 16일에는 연등회의 백미인 본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범어사, 제126회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

4월 29~30일, 5500여 명 수계
수불 스님 "보살계는 자비 발현"



금정총림 범어사가 4월 29~30일 보제루 금강계단에서 봉행한 '제126회 보살계 수계산림'에서 전계대화상 수불 대종사가 수계자 대표들에게 계첩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이 여법히 회향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보제루 금강계단에서 사부대중 5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6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산림은 전계대화상 율주 수불 대종사, 갈마아사리 화봉 스님, 교수아사리 원창 스님을 비롯해 정오·일광·법안·공마·목종·도경·담화림 스님이 존증아사리로 나서 3사 7증의 법석을 증명했다.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도 참석해 지계의 삶을 서원하는 수계 제자들의 신심을 격려했다.

입재일인 29일에는 천수다라니와 노사나불 정근, 주지 스님 인사, 전계사 스님 심지법문, 갈마아사리 스님의 십중대계(十重大戒) 설법이 진행됐다. 회향일인 30일에는 교수아사리 스님의 48경계 설법에 이어 묵은 업장을 태워내는 연비 의식 및 계첩 수여가 진행됐다.

전계대화상 수불 스님은 심지법문을 통해 보살계의 핵심이 형식적인 규율의 준수를 넘어 '자비행의 적극적인 실천'에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보살계는 나를 얽매는 수동적인 규칙이 아니라, 세상과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심(利他心)의 발현"이라며 "이웃을 향해 한없는 나눔과 베풂을 실천함으로써 나와 남이 한날한시에 깨달음을 이루는 '자타일시성불(自他一時成佛)'의 대도(大道)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보살계를 수지한 불자의 참된 도리"라고 당부했다.

범어사 금강계단은 1901년 만하 스님의 주도하에 중국 법원선사의 계맥을 이은 성월 스님이 개설했다. 이후 일봉-운봉-영명-동산 스님으로 이어져 왔고 동산 스님이 용성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칠불맥과 기존 계맥을 통합한 뒤 석암-고산-수불 스님으로 계맥이 전승돼 오늘날 한국불교 지계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덕원사, 성불관 낙성

5월 3일 낙성식 및 현판식 봉행
"수행 · 신행 도량 새 전기 마련"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는 5월 3일 산신각 현판식 및 성불관 낙성식을 봉행했다.

주지 덕원 스님은 인사말씀을 통해 "산신각은 우리 민족 고유의 산신신앙과 불교가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도량을 수호하고 중생의 소망을 들어주는 의미를 지닌다"며 "이 도량을 찾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각 가정마다 길상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축사에서 덕원사가 대도량의 위의를 갖춘 만큼 "겸손과 포용의 수행정신이 도량 발전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불사는 노후화된 전각을 보수하고 수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2024년 7월 설계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착공, 지난해 1월 상량식을 거쳐 지난 1월 준공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전통 목조건축 양식의 산신각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됐다. 대지면적 533㎡, 연면적 576.84㎡ 규모로 1층 주차장, 2층 공용시설, 3층 산신각과 요사채가 배치됐다. 특히 옥상부에는 전통 맞배지붕 형식의 산신각을 올려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도량의 면모를 갖췄다.

이날 덕원 스님은 불사에 공헌한 공로로 김수열, 황갑선, 김광복, 김강현, 유준환, 권성일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불교문화원, 장유 화상 추모재

5월 1일 대성동고분군서
가야불교 뿌리 되새겨



김해불교문화원(이사장 혜수 스님·김해불교연합회장)은 5월 1일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불기 2570년 장유 화상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으로부터 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로 이어지는 법맥과 인도불교 27대 반야다라존자를 거쳐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 대사에 이르는 정법의 전통을 소개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몸은 곧 광명의 깃발이 되고, 그 가르침을 간직한 마음은 신통의 창고가 된다"며 "정법의 계승은 수행과 실천 속에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의 추모재가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광명의 깃발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대호 김해시 부시장은 축사에서 "장유 화상의 정신은 가야불교의 뿌리이자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추모재를 통해 선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지역사회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해시는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석 대중은 영산작법과 종사영반 등 추모의식을 통해 장유 화상의 가르침을 기리며 지역 불교 전통 계승과 수행 정진을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스티커 한 장으로 새에게 생명을"

울산불교환경연대, 생태 캠페인
"조류충돌 저감 장치 법제화 要"



도심 곳곳의 투명한 유리 건축물이 야생조류를 위협하는 '죽음의 벽'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막기 위해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 스님)가 나섰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땡땡학교) 일대에서 '조류충돌 저감 및 생태감수성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창길 자연의벗 이사장과 홍승민 짹짹휴게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조류충돌과 멸종위기종(1차시) △울산의 생물다양성과 위협요인(2차시) △마을 주변 탐조 활동(3차시) 등 이론과 생태 관찰을 체계적으로 이끌었다. 5월 2일 4차시에서는 거점센터 인근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를 직접 부착했다.〈사진〉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조류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불교계의 동참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스님은 "조류충돌 저감은 곧 불교의 자비이자 생명을 살리는 방생의 문제"라며 "건축 설계 단계부터 조류충돌 저감 장치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가 먼저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도 캠페인에 뜻을 함께했다. 스님은 생명 존중의 의미에 공감하며 캠페인에 사용된 스티커 제작을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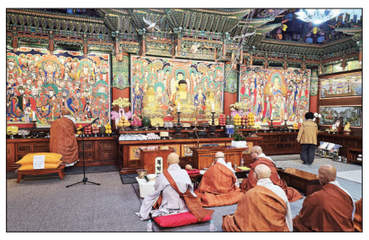
캠페인에 참가한 한 주민은 "내 손으로 붙인 스티커가 진짜로 새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뭉클했다"며 "새장의 새를 날려 보내는 것만이 방생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곧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립생태원 조사에 따르면 투명창 충돌로 폐사하는 새는 국내에서만 하루 2만여 마리,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유리창 외부에 5cm 이하 간격의 점이나 선 패턴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불광사, 대웅전 탱화 불사 회향

조해종 불모 2년여간 조성
5월 1일 후불탱화 점안식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 부산 불광사(주지 보원 스님)가 5월 1일 대웅전에서 '탱화불사 회향 점안식'을 봉행했다. 새롭게 조성된 탱화는 국가무형유산 불화장 석정 스님의 제자로 전통 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연당 조해종 불모(연당불교미술원장)의 작품이다. 조해종 불모는 지난 2년 동안 불보살과 외호신장의 모습을 장엄하게 표현했다.

법회에는 불광사 창건주이자 증명법사인 인산 지준 대종사와 지학·오송·문수·무비·도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희용 부산시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다. 이날 주지 보원 스님은 불사에 공로를 세운 조해종 불모와 박희용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불광사 창건주 지준 스님은 법문을 통해 "1987년 8평 남짓한 조그만 법당으로 시작해 대웅전을 짓고 손수 단청하던 시절, 늘 제대로 된 후불탱화를 모시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며 "보원 스님이 주지를 맡아 도량을 가꾸고 훌륭한 탱화까지 원만하게 모시게 되어 창건주로서 마음이 참으로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유학생들 '팔모등 만들기' 도전!

5월 13일까지 800개 제작
직접 만든 등으로 제등행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는 5월 6일 교내 선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팔모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유학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건학이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학생들은 '팔모등'을 직접 제작하며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사 틀에 한지를 붙여 완성하는 과정은 약 20분가량으로, 동아리 학생들의 안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등의 상징성과 제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작 과정에서 등불은 내면을 밝히는 지혜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비를 상징하며, 정성을 다해 등을 만드는 과정은 수행의 실천인 정진을 의미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전통 팔모등 만들기'는 5월 13일까지 가람당과 선센터 공양동 등에서 상시 운영되며, 불교동아리 단체 제작을 중심으로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교직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총 800여 개의 팔모등이 제작될 예정이다.

완성된 팔모등은 5월 14일 열리는 '형산강연등문화축제' 제등행렬에 활용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등을 들고 행렬에 참여한다.

유학생 천 메이이(경영학 3년) 학생은 "연등을 만들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직접 만든 등을 들고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류완하 총장은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미를 체험하고 소속감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